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악교정 수술에 의한 자기개념의 변화

설유석¹ · 손우성¹ · 박수병¹ · 김성식¹ · 김종렬²

¹부산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²부산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Abstract

CHANGES OF SELF-CONCEPT BY ORTHOGNATHIC SURGERY IN THE PATIENTS OF SKELETAL CLASS III MALOCCLUSION

You-Seok Seol¹, Woo-Sung Son¹, Soo-Byung Park¹, Seong-Sik Kim¹, Jong-Ryul Kim²

¹Department of Or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Pusan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Oral & Maxillofacial Surgery, School of Dentistry, Pus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psychologic changes of skeletal Class III malocclusion individuals by orthognathic surgery.

Methods: One hundred and thirty seven adults skeletal Class III malocclusion individual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Fifty two for pre-surgery group, forty two for 2-months after orthognathic surgery group and forty three for 6-months after orthognathic surgery group. Each group was investigated by questionnaires related to self-concept standard developed by Dr. Lee. The questionnaires included physical self-concept, ethic self-concept, characteristic self-concept, domestic self-concept, the social self-concept and capable self-concept. Each group was compared by one-way ANOVA.

Results: Only the physical self-concept showed significant changes after orthognathic surgery, however it did not show differences between after 2-months and after 6-months. But other self-concept did not show significant changes by orthognathic surgery.

Conclusion: At first, it is expected that many variables related to self-concept were influenced by orthognathic surgery. But only physical self-concept showed significant change by orthognathic surgery.

Key words: Orthognathic surgery, Self-concept

I. 서 론

사회에서 개인은 일상적 행동 양식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나 타인의 인격적 특성에 대해 추론한다. 이때, 외모는 타인에게 강한 첫인상을 남기게 되는데 첫인상은 앞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카테고리를 제공한다. 이렇듯, 처음으로 활용 가능한 암시에 근거한 외모의 첫인상은 사회적 상호관계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다¹⁾. 특히 오늘날 외모가 일상생활에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증가하여 외모에 대한 현대인들의 집착은 단순히 자기만족의 단계를 넘어서 자기 정체감의 형성이나 심지어는 사회 네트

워크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²⁾.

자기개념(self-concept)에서 “자기”는 우리의 전반적 행위를 지배하는 사고, 기억, 의도와 같은 모든 과정에 대한 집약어이다. 자기개념은 자신에 대한 지각, 느낌, 신념의 합성체이며, 자기개념 발달은 자기체계(self-system), 인격화(personification), 자기느낌(self-feeling), 자기인식(self-awareness)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자신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고,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개념,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³⁾.

이러한 자기개념의 변화는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성장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변화들은 청년기에 걸쳐 진행되는

자기정체감(self-identity)에 대한 추구에서 뿐만 아니라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과정에서도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급속한 기술 및 사회변화가 자신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근본적인 태도에 영향을 준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연구는 자기개념에 있어서 가장 현저한 변화들은 12세에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개념에 있어서의 이런 큰 변화들은 신장과 체중의 증가,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정신능력, 성적 성숙의 도달과 같은 청년기의 빠른 신체적 변화의 특징으로부터 생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12세 아동들에 대한 비교연구는 청년기의 환경이 자가 의식의 차이점을 가져온다는 것을 지적했다. 중학교의 아동들은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보다 더욱 부정적인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의식은 십대 중반기 이후부터 다소 안정 상태로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 한 가지는 성장률이 점점 느려지면서 좀 더 안정적인 신체상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성적 성숙에 따라서 청년들은 이성을 좋아할 수 있는 자신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하게 된다⁴⁾.

신체상의 이론적인 정의는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갖는 의식적 무의식적 태도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신체 구조, 기능, 외모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와 느낌에 대해 가지게 되는 개인의 내적인 경험이다⁵⁾. 1950년대에 행해진 신체상에 대한 연구에서, Secord와 Jourard⁶⁾는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지니고 있는 대학생들은 낮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균 이상의 신체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50%가 평균 이상의 자존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평균 이하의 신체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단지 11% 만이 평균 이상의 자존심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또한 여러 신체 부분에 대한 만족과 자존심과의 관계를 보았고, 아울러 남녀 모두 얼굴에 대한 만족이 큰 차이점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아냈다. 자기의 얼굴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좀 더 자신감이 있었다고 한다⁶⁾.

외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치아와 안면의 모습은 타인에 대한 매력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기개념에서도 중요하다⁷⁾. Albino와 Tedesco⁸⁾는 경미하거나 중등도의 부정교합으로 교정치료를 받은 아동을 연구한 결과 교정치료를 받지 않은 유사한 아동군과 비교하여 자기상(self-image), 자기존중감(self-esteem), 자기인식(self-percep-

tion), 용모에 대한 동료들의 인식(peer-perception), 사회적인 행동과 결과에 대하여 사회적인 심리검사를 한 결과 치료 후 약 1년이 경과한 뒤 치료를 받은 아동들은 치료를 받지 않은 아동들보다 자신이 더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친구들의 평가 또한 더 긍정적이었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또한, Rutzen⁹⁾은 교정치료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사람들과 부정 교합이 있으나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였는데 교정치료를 받은 사람이 교정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 자신의 용모에 대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에게서 느껴지는 외적인 이미지는 거칠고 강한 이미지이다. 자기 자신의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들은 유아 시절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기를 거쳐 교정치료를 동반한 악교정 수술을 하기까지 자신의 외모에 대해 콤플렉스를 느껴왔을 것이며 자신의 외적인 콤플렉스를 해결하고자 심사숙고 끝에 교정치료와 더불어 악교정 수술을 결정했을 것이다. 그들은 교정치료 및 악교정 수술을 통해 자신의 외모가 이전보다 아름다워 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악교정 수술 후 자기의 아름다워진 외모로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있어서 좀 더 자신감이 있도록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개념 척도 검사를 통하여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에서 교정치료를 동반한 악교정 수술 전과 수술 후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개념의 변화가 나타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부산대학병원 치과 교정과 및 구강악안면외과에 교정치료를 동반한 악교정 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 52명과 교정치료를 동반하여 악교정 수술을 받은 후 2개월이 경과한 악교정 수술자 42명 악교정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악교정 수술자 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평균 연령은 (Table 1)에서 나타내었

Table 1. Age distribution of the samples

	N	Mean	S.D
Pre-surgery	52	23.46 yrs	3.80 yrs
2 Months after surgery	42	23.40 yrs	3.62 yrs
6 Months after surgery	43	24.36 yrs	3.58 yrs

S.D : Standard Deviation

으며 설문조사 시 각 집단의 내원 당시 나이를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제한하였다.

2. 연구 방법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각 연구 대상자에게는 치과 교정과 및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였을 때 개별적으로 이훈진¹⁰⁾의 자기개념 척도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부록 1). 이 자기개념 척도 문항은 총 30문항에 5품의 평정 척도로 되어있다.

본 설문지는 소척도별로 각각 5문항씩 총 30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반응하며 설문지의 채점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0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1점, “보통이다”에 2점, “대체로 그렇다”에 3점, “항상 그렇다”에 4점으로 환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산출한 총 자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념이 긍정적이고, 낮을수록 자기개념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3. 통계 처리

악교정 수술 전 집단의 척도별 차이와 악교정 수술 후 집단들의 각 척도별 차이를 통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SPSS(Ver. 12k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America)를 이용하여 Levene Test를 통해 집단 간의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정을 실시한 후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으로 유의성을 검정하였으며 유의성이 나타난 경우 사후 검정으로 Scheffe’s Method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Ⅲ. 연구 성적

1. 신체적 자기개념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적 자기개념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Levene test결과 집단 간의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정을 하였고 P-value가 0.002이며 F값이 F기각치보다 큰 것으로 보아 수술 전, 수술 후 2개월, 수술 후 6개월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악교정 수술 전 집단에서는 신체적 자기개념 척도 점수의 최대 점수가 15, 최소 점수가 5, 악교정 수술 후 2개월 집단에서는 최대 점수가 15, 최소 점수가 4, 악교정 수술 후 6개월 집단에서는 최대 점수가 17, 최소 점수가 5로 나타났다. 악교정 수술 전 신체적 자기개념의 평균 점수는 9.25 악교정 수술 2개월 후 자기개념의 평균 점수는 10.38, 악교정 수술 6개월 후 자기개념의 평균 점수는 10.70 으로 악교정 수술 전과 수술 2개월 후, 수술 6개월 후의 평균점수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였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집단 사이에서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은 평균의 차이가 있는 집단이 어느 집단인가를

Table 2. Changes of physical self-concept

	N	Mean	S.D	Levene	P	F	C.V
Pre-surgery	52	9.25	1.959				
2 Months after surgery	42	10.38	2.060	0.284	*0.002	6.47	3.06
6 Months after surgery	43	10.7	2.231				

C.V : Critical Value of F, Levene : Levene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P<0.05

Table 3. Multiple comparison by Scheffe’s method

I	J	M.D (I-J)	S.E	Sig.
Pre-surgery ^a	2Months after Surgery	-1.13	0.431	*0.035
	6Months after Surgery	-1.45	0.428	*0.004
2 Months after surgery ^b	Pre-Surgery	1.13	0.431	*0.035
	6Months after Surgery	-0.32	0.451	*0.782
6 Months after surgery ^b	Pre-Surgery	1.45	0.428	*0.004
	2Months after Surgery	0.32	0.451	*0.782

M.D : Mean Difference, S.E : Standard Error, Sig. : Significance probability *P<0.05 a, b : Scheffe grouping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각 어느 집단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의성이 있는 차이가 어떤 집단의 차이에 기인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후 검정의 방법 중 Scheffe's Method를 이용하여 각각 어느 집단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악교정 수술 전과 수술 2개월 후, 악교정 수술 전과 수술 6개월 후에는 유의확률이 각각 0.035와 0.004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악교정 수술 후 2개월과 수술 후 6개월은 유의확률이 0.78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Scheffe grouping을 통하여 동일 집단군에 있는 집단에 대한 평균의 평가를 살펴보면 악교정 수술 전 집단과 수술 2개월 후 집단 그리고 악교정 수술 전 집단과 수술 6개월 후 집단은 서로 다른 집단이었으나 악교정 수술 2개월 집단과 수술 6개월 집단은 같은 집단이었다.

2. 도덕적 자기개념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덕적 자기개념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Levene test결과 집단 간의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정을 하였고 P -value가 0.17이며 F 값이 F 기각치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수술 전, 수술 후 2개월, 수술 후 6개월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악교정 수술 전 집단에서는 도덕적 자기개념 척도 점수의 최대 점수가 15, 최소 점수가 5, 악교정 수술 후 2개월 집단에서는 최대 점수가 15, 최소 점수가 7, 악교정 수술 후 6개월 집단에서는 최대 점수가 17, 최소 점수가 5로 나타났다.

에 대한 검정을 하였고 P -value가 0.17이며 F 값이 F 기각치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수술 전, 수술 후 2개월, 수술 후 6개월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악교정 수술 전 집단에서는 도덕적 자기개념 척도 점수의 최대 점수가 15, 최소 점수가 5, 악교정 수술 후 2개월 집단에서는 최대 점수가 15, 최소 점수가 7, 악교정 수술 후 6개월 집단에서는 최대 점수가 17, 최소 점수가 5로 나타났다.

3. 성격적 자기개념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격적 자기개념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Levene test결과 집단 간의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정을 하였고 P -value가 0.07이며 F 값이 F 기각치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수술 전, 수술 후 2개월, 수술 후 6개월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악교정 수술 전 집단에서는 성격적 자기개념 척도 점수의 최대 점수가 14, 최소 점수가 2, 악교정 수술 후 2개월 집단에서는 최대 점수가 15, 최소 점수가 4, 악교정 수술 후 6개월 집단에서는 최대 점수가 15, 최소 점수가 2로 나타났다.

Table 4. Changes of ethic self-concept

	N	Mean	S.D	Levene	P	F	C.V
Pre-surgery	52	10.42	2.622				
2 Months after surgery	42	11.36	1.898	2.654	*0.17	1.81	3.06
6 Months after surgery	43	10.79	2.455				

* P <0.05

Table 5. Changes of characteristic self-concept

	N	Mean	S.D	Levene	P	F	C.V
Pre-surgery	52	7.04	2.672				
2 Months after surgery	42	8.43	2.265	1.738	*0.07	2.79	3.06
6 Months after surgery	43	8.77	2.224				

* P <0.05

Table 6. Changes of domestic self-concept

	N	Mean	S.D	Levene	P	F	C.V
Pre-surgery	52	7.58	1.819				
2 Months after surgery	42	7.38	1.86	0.555	*0.69	0.38	3.06
6 Months after surgery	43	7.72	1.737				

* P <0.05

Table 7. Changes of social self-concept

	N	Mean	S.D	Levene	P	F	C.V
Pre-surgery	52	11.13	2.829				
2 Months after surgery	42	10.45	2.461	0.914	*0.07	2.72	3.06
6 Months after surgery	43	11.77	2.428				

*P<0.05

Table 8. Changes of capable self-concept

	N	Mean	S.D	Levene	P	F	C.V
Pre-surgery	52	9.54	2.227				
2 Months after surgery	42	9.93	1.918	1.252	*0.47	0.77	3.06
6 Months after surgery	43	10.00	1.662				

*P<0.05

4. 가정적 자기개념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적 자기개념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Levene test결과 집단 간의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정을 하였고 P-value가 0.38이며 F값이 F기각치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수술 전, 수술 후 2개월, 수술 후 6개월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악교정 수술 전 집단에서는 가정적 자기개념 척도 점수의 최대 점수가 11, 최소 점수가 3, 악교정 수술 후 2개월 집단에서는 최대 점수가 11, 최소 점수가 3, 악교정 수술 후 6개월 집단에서는 최대 점수가 12, 최소 점수가 3으로 나타났다.

5. 사회적 자기개념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자기개념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Levene test결과 집단 간의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정을 하였고 P-value가 0.07이며 F값이 F기각치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수술 전, 수술 후 2개월, 수술 후 6개월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악교정 수술 전 집단에서는 사회적 자기개념 척도 점수의 최대 점수가 20, 최소 점수가 7, 악교정 수술 후 2개월 집단에서는 최대 점수가 16, 최소 점수가 5, 악교정 수술 후 6개월 집단에서는 최대 점수가 16, 최소 점수가 6으로 나타났다.

6. 능력적 자기개념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능력적 자기개념에 대한 변

화를 살펴보면 Levene test결과 집단 간의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정을 하였고 P-value가 0.07이며 F값이 F기각치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수술 전, 수술 후 2개월, 수술 후 6개월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악교정 수술 전 집단에서는 능력적 자기개념 척도 점수의 최대 점수가 14, 최소 점수가 3, 악교정 수술 후 2개월 집단에서는 최대 점수가 14, 최소 점수가 6, 악교정 수술 후 6개월 집단에서는 최대 점수가 14, 최소 점수가 6으로 나타났다.

Ⅳ. 고 찰

Kleck과 Rubenstein¹¹⁾은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보다 매력적인 사람이 더 자주 미소를 받으며 다른 사람들이 더 오래 쳐다본다는 보고를 하였으며,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 사회생활에서 장애가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를 사회생활에 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여러 연구자들은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은 주위로부터 각기 다른 기대와 사회적인 반응을 받아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으며 풍부한 사회적인 경험을 하게 되므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보고되어 있다¹²⁻¹⁴⁾.

이처럼 의학의 비약적인 발달과 더불어 사람들의 인식도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의학적인 도움으로 좀 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외모의 아름다움에만 목적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려 노력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악교정 수술을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심미적인 이유로 내원한다고 한다. Laufer 등¹⁵⁾(89%), Flanary 등¹⁶⁾(78%), Jacobson¹⁷⁾(76%)의 연구에서 심미

적 이유가 치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였으며, Kiyak 등¹⁸⁾은 악교정 수술을 찾는 성인 환자의 동기를 전향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악교정 수술 환자의 동기를 평가하는 장기 연구에서 수술 전, 후에 성격 특성을 평가하고 수술 전, 수술 시, 수술 후 여러 단계에서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한 결과 여성의 53%, 남성의 41%에서 외모를 개선하고자 하는 바램이 수술 결정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제는 교정치료와 악교정 수술이 널리 보편화되면서 과학 그리고 의학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환자의 심리적인 변화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정¹⁹⁾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가장 흔한 부정교합의 하나인 전치부의 치아배열과 돌출, 그리고 교정치료 여부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치열이 고르지 못한 경우 자기존중감이 낮았으며, 치아배열이 고르고 입술 주위의 돌출감도 없는 여학생들이 가장 자기존중감이 높았고 교정치료를 받은 학생들은 교정치료를 통해 좋은 치아배열과 안모를 얻게 됨으로 인하여 높은 자기존중감을 보여주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치열과 안모의 심미성을 개선하도록 하는 교정치료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자기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정교합이 저작이나 발음 등의 기능적 문제 뿐 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악교정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도 이들의 정신심리 상태가 정상범주에 놓여 있으며 수술 후 만족도가 높고, 수술에 의해 정신심리 상태가 보다 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박 등²⁰⁾은 악교정 수술 환자는 정상적인 정신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변화되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하였는데 수술동기를 크게 기능적, 심미적인 개선과 측두하악 관절증의 개선 및 사회적 관계개선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특징적으로 정신 사회학적 동기(사회적인 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 불안정한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등)를 답한 환자가 전체의 30.7%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Jacobson 등²¹⁾의 연구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의 53-100%가 정신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한 것과 같이 악교정 수술자들도 정신 사회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악교정 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의 연구에서 악교정 수술이 요구될 정도로 치아안면 이상이 심한 환자를 평가하였는데, 대상의 현재 심리적인 근심을 알아보기 위해 90개 항목(Symptom Checklist-90-R; SCL-90R)의 심리검사를 시행한 결과 환자의 15% 이상이 강박적인 행동, 대인 관계에 대한 민감성 문제, 적개심, 편집증적인 관념화, 정신병적인 영향 점수가 높았으며 24.7%가 정신의학적인 질환으로 진단되었다. 이처럼 치료를 받으러 오는 치아안면

부조화 환자 중 놀라울 정도로 많은 수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리적인 곤란을 내재하고 있다²²⁾.

자기개념은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불변적인 것도 아니다. 개인의 자신에 대한 지각, 신념, 태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친다. 긍정적인 자기관은 다른 학습 경험을 긍정적인 것이 되게 하는 출발점을 형성한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부정적인 말로 공격하는 것을 학습한 사람들은 어떤 경험이든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비슷하게 자기개념도 인간의 경험을 여과하여 채색하는 기제이다. 자기개념이 부정적이면 보여지는 세상의 사물도 부정적인 색조를 가진다. 자기개념이 긍정적이면 세상의 사물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보게 된다²³⁾.

긍정적인 신체상은 건강한 자기개념, 자기 신뢰와 사회적 적응능력을 발달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Secord와 Jourard는 신체의 부분에 대한 만족은 긍정적인 자기개념에 영향을 주고, 불만족은 불안과 불안정에 관련이 있음을 지적했다. 즉, 어떤 개인이 속한 문화 가치에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개인이 그 사회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신체 외모를 지니게 된다면, 그 개인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하여 그 사회가 개인의 신체적 외모에 부여하는 바와 똑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자신을 보기 쉽다는 것을 말해준다²⁴⁾. Jacobson²⁵⁾의 예상치 못한 안모 변화에 의한 자아평가 연구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에게서 교정-악교정 수술 치료가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하였다. John 등²⁶⁾은 BSSO(Bilateral sagittal split osteotomy) technique으로 악교정 수술을 한 환자 집단을 수술 전 1-2 주 그리고 수술 후 1주, 8주, 6개월 그리고 2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심리학적인 역할은 수술 후 2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대학병원 치과 교정과 및 구강악안면외과에 교정치료를 동반한 악교정 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 52명과 교정치료를 동반하여 악교정 수술을 받은 후 2개월이 경과한 악교정 수술자 42명 악교정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악교정 수술자 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Rahbar²⁷⁾의 연구에 따르면 단지 교정 장치만 부착해도 환자 자신의 외모 인식 정도가 개선됨을 발견할 수 있었고, 치료로부터 실제 안면의 변화가 오기 전에 장치만 부착해도 정신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악교정 수술 전 환자군에서는 수술 전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악교정 수술 후 2개월과 6개월 집단은 악교정 수술 후 2개월은 초기 교정 기간이고 수술로 인한 부종이 대부분 사라지는 시기이고 또한 기능적으로도 40mm 까지 개구되며, 개구와 측방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이며²⁸⁾, 악교정 수술 후 6개월은 악교정 수술로 인해 변화된 자기의 외모에 적응하면서 이차적으로 자기의 외모를 되돌아보는 시

기라고 판단되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한 후 각각 Student T-test 결과 모든 측정치에서 유의한 범위 내에서 차이가 없었으므로 성별에 따른 분류는 제외하였다.

신체적 자기개념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자긍심, 심리적 행복감이 훨씬 높았으며, 아울러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긍심, 심리적 행복감 간에 높은 상관을 보였다²⁹⁾. 본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자기신체에 대한 자신의 견해, 건강상태, 신체적 외상, 재능 및 성적 매력 등을 나타내는 신체적 자기개념 점수는 악교정 수술 전과 수술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악교정 수술 후 2개월과 6개월 사이의 신체적 자기개념의 평균 점수는 변화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성이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즉, 신체적 자기개념은 악교정 수술로 인하여 외모의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난 후에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악교정 수술 후 2개월과 6개월 사이의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에는 신체적 자기개념은 점진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악교정 수술 후 6개월 정도에서 악교정 수술로 인해 변화된 자기의 외모에 적응하면서 이차적으로 자기의 외모를 되돌아보며 또 변화한 외모에 다른 불만족스러운 심리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기개념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기개념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개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도 결정한다. 모든 개인은 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유사한 기대의 체계를 가진다. 자기 자신을 비호의적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게 되어, 이러한 기대와 일치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사물을 이러한 기대에 맞추어 해석하게 된다²³⁾.

본 연구에서 악교정 수술을 통해서 외모적으로 큰 변화를 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보는 관념체계를 나타내는 사회적 자기개념 점수의 변화는 유의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성이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정신적으로 고민이 많았던 악교정 수술 환자는 악교정 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나 자기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과대평가를 하는 환자들은 술 후 4-6주 간의 대인 관계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었지만³⁰⁾ Stewart 등³¹⁾에 따르면 6-10주의 고정기간동안 수술 후 악교정 수술자들은 고정기간을 그들과 외부세계, 배우자, 아이들, 친구,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변하는 시기라고 표현하였고 이 시기에 5-25파운드의 체중 감소가 보고되었으며, 식욕 부진, 악관절 동통, 안면근 동통 등이 흔히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이 악교정 수술자들이 다시 수술 후 다

시 사회로 나설 때 자기의 변화된 외모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들의 자기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체적 자기개념의 긍정적 변화가 사회적 자기개념의 긍정적 변화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개인이 자신의 학업능력에 대해서 가지는 지각이나 신념으로 학생이 학습과제나 시험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느낌을 의미하는 능력적 자기개념은 자기 자신의 교육 수준과 학습 수학 능력과 관계가 있으므로 악교정 수술로는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도덕적 준거 개인의 도덕적인 준거 체제가 어떠한가를 말해주는 도덕적 자기개념은 악교정 수술로 도덕적 준거를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악교정 수술에 의해 변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Belfer 등³²⁾은 신체적인 매력도가 낮은 사람들은 유아기 동안 부모와의 성공적인 상호 관계를 가지는 능력이 낮고, 자신이 유능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도 미숙하여, 결국 자기 방어적이고 손상된 자존심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개인이 얼마나 평안한 마음으로 있으며 자기의 인간적 가치가 얼마나 인정되고 있으며 얼마나 원만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정적 자기개념은 개인의 가정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자기개념이므로 악교정 수술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기존중감, 한 사람으로서의 자족의 느낌, 자기 성격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의미하는 성격적 자기개념은 악교정 수술로 외모의 개선을 경험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들에게는 변화할 수 있는 자기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성격적 자기개념의 평균 점수는 악교정 수술 전과 수술 후 2개월,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짧은 시간에 성격적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악교정 수술 결과를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심리학적으로 체계적인 방법을 동반해야 할 것이다.

악교정 수술과 신체적 자기개념이 자기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악교정 수술로 외모가 아름다워지는 만족감에 부합하여 자기존중감이나 신체적 자기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또 다른 자기개념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생각되나 연구된 결과가 없으므로 이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높은 자기존중감은 도덕적, 가정적, 사회적 자기개념을 높일 것으로 생각되어졌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악교정 수술에 의해 신체적 자기개념은 높아졌으나 신체적 자기개념 이외의 다른 자기개념은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다른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변

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악교정 수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러한 자기개념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기의식은 십대 중반기 이후부터 안정 상태로 되어가는 경향이 있으며 성장률이 점점 느려지면서 좀 더 안정적인 신체상을 갖게 되고 일반적으로 좀 더 안정되고 긍정적인 자존심을 눈에 띄게 지니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⁹⁾. 악교정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들은 청소년기를 지나 성장이 완료한 상태이다. 이는 이미 자기개념이 탄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간 연령 시기이며 이미 자신의 틀에 안정화된 자기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고 변화시키며 이러한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술 전 교정 기간 동안 성인에 맞는 신체상 왜곡 프로그램이나 자기개념 증진 프로그램 등을 동시에 시행하여 교정치료 및 악교정 수술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전문가적인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교정치료와 악교정 수술의 치료 결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다각도로 연구되어야 하겠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을 개선하기 위해 교정치료를 동반한 악교정 수술 환자에 있어서의 자기개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부산대학병원 치과 교정과 및 구강악안면외과에 교정치료를 동반한 악교정 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 52명과 교정치료를 동반하여 악교정 수술을 받은 후 2개월이 경과한 악교정 수술자 42명, 그리고 악교정 수술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악교정 수술자 43명을 대상으로 자기개념 척도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신체적 자기개념은 악교정 수술 전과 수술 후 2개월, 수술 후 6개월의 집단 간에 평균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사후 검정 결과 악교정 수술 전과 수술 후 집단 사이에 신체적 자기개념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변화가 나타났으나, 악교정 수술 후 2개월과 수술 후 6개월 집단 사이에 신체적 자기개념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2. 도덕적 자기개념, 가정적 자기개념, 사회적 자기개념, 능력적 자기개념은 각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3. 성격적 자기개념은 악교정 수술 전과 수술 후 2개월, 수술 후 6개월의 집단 간에 평균 점수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들은 악교정 수술을 통해 신체적 자기개념은 악교정 수술 전보다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반면 도덕적, 성격적, 가정적, 사회적, 능력적 자기개념은 악교정 수술로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른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개념 향상 프로그램 등을 악교정 수술과 동시에 시행하여 신체적 자기개념 이외의 다른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문가적인 방법을 동반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Flake ST, Taylor SE : Social cognition(2nd edition). McGraw-Hill. 1991.
2. Lee KY : A Study on the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Sociality - Focus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 The Student Counseling Center Sangmyung University 11 : 1, 1998.
3. Eastwood A : Psychology for adjustment-Personal growth in a changing world. Prentice Hall. 1982.
4. Simonson R, Florence R, Morris R : Disturbance in the Self-image at Adolesc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 : 553, 1973.
5. Stuart GW, Sundeen SS : Principle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Mosby. 1983.
6. Pevin LA : Personality : Theory and Research(5th edition). John Wiley & Sons, Inc. 1989.
7. Alley TR, Hildebrandt KA :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facial aesthetics. In Alley TR, editor: Social and applied aspects of proceeding faces. Lawrence Erlbaum. 1988.
8. Albino JE, Tedesco L : Esthetic need for orthodontic treatment. In Melsen B, editor: Current controversies in orthodontics. Quintessence Publishing. 1994.
9. Rutzen SR. The social importance of orthodontic rehabilitation : report of a five year follow-up study. J Health Soc Behav 14 : 233, 1973.
10. Lee HJ : Self-concept and attributional style in paranoia.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7.
11. Kleck RE, Rubenstein C : Physical attractiveness, perceived attitude similarity, and Interpersonal attraction in opposite sex encounter. J Pers Soc Psychol 31 : 107, 1975.
12. Dion KK, Bercheid E, Walster E : What is beautiful is g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 : 285, 1972.
13. Adams GR : Physical attractiveness research: toward a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of beauty. Hum Dev 20 : 217, 1977.
14. Byun KS, Min SK, Kim SA *et al* : The Influence of Aesthetic Surgery on Patients' Mental Health.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8 : 95, 1999.
15. Laufer D, Glick D, Gutman D *et al* : Patient motivation and response to surgical correction of prognathism. J Oral Surg 41 : 309, 1976.
16. Flanary CM, Barnwell GM, Alexander JM : Patient perceptions of orthognathic surgery. Am J Orthod 88 : 137, 1985.
17. Shaw WC : The influence of children's dentofacial appearance on their social attractiveness as judged by peers and

- lay adults. Am J Orthod 79 : 399, 1981.
18. Kiyak HA, Hohl T, West RA. Psychologic changes in orthognathic surgery patients : a 24-month follow-up. J Oral Maxillofac Surg 42 : 506, 1984.
 19. Jung MH : Effects of malocclusion and orthodontic treatment on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Orthodontics 37 : 56, 2007.
 20. Park WK, Park SB, Park JE : A study on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orthognathic surgery patients through the MMPI. The Korean Journal of Orthodontics 28 : 1, 1998.
 21. Jacobson WE, Edgerton MT, Meyer E *et al* : Psychiatric evaluation of male patients seeking cosmetic surgery. Plast Recons tr Surg 26 : 56, 1960.
 22. Phillips C, Bennett ME, Broder HL : Dentofacial disharmony : psychological status of patients seeking treatment consultation. Angle Orthod 68 : 547, 1998.
 23. Felker D.W : Building positive self-concepts. Burgess Publishing company. 1974.
 24. Song IS : Human psychology and self-concept (2nd edition). Yangseowon Publishing. 1990.
 25. Jacobson A : Psychological Aspects of dentofacial esthetics and orthognathic surgery. Angle Orthod 54:18, 1984.
 26. John PH, John DR, Robert AB *et al* : Psychological function in orthognathic surgical patients before and after bilateral sagittal split osteotomy with rigid and wire fixation.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 115 : 536, 1999.
 27. Rahbar F : Changes in self-esteem and self-concept as a result of orthodontic treatment: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001.
 28. Proffit WR, Whit RP : 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Mosby. 1990.
 29. Lee YJ, Lee KY, Jung MS *et al* : The relationship with physical self-concept on the self-esteem, psychological well-being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17:319, 2002.
 30. Phillips C, Kiyak HA, Bloomquist D *et al* : Perceptions of Recovery and Satisfaction in the Short Term After Orthognathic Surgery. J Oral Maxillofac Surg 62:535, 2004.
 31. Thomas DS, John S : Depression : A possible complication of orthognathic Surgery. J Oral Maxillofac Surg 45:847, 1987.
 32. Belfer ML, Harrison AM, Pillemer FC. Appearance and the influence of reconstructive surgery on body image. Clin Plast Surg 9:307, 1982.

저자 연락처

우편번호 602-739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1가 10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손우성

원고 접수일 2008년 4월 22일
게재 확정일 2008년 7월 7일

Reprint Requests

Woo-Sung Son

Dept. of Or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Pusan National University
10 Ami-dong 1 ga, Seo-gu, Pusan, 602-739, Korea
Tel: 82-51-240-7447
E-mail: wsson@pusan.ac.kr

Paper received 22 April 2008
Paper accepted 7 July 2008

(부록 1)

자기개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나의 외모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0	1	2	3	4
2. 나의 몸은 연약한 편이다.	0	1	2	3	4
3. 나의 용모는 매력있는 편이다.	0	1	2	3	4
4. 나는 몸의 불편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0	1	2	3	4
5. 나에게는 성적 매력이 없는 것 같다.	0	1	2	3	4
6. 나는 대개 바른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0	1	2	3	4
7. 나는 나의 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0	1	2	3	4
8. 나는 강한 도덕적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	0	1	2	3	4
9. 나는 나쁜 사람이다.	0	1	2	3	4
10.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0	1	2	3	4
11. 나는 내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0	1	2	3	4
12. 나는 모난 성격을 가지고 있다.	0	1	2	3	4
13. 나는 남의 미움을 받을 만한 성격의 소유자다.	0	1	2	3	4
14.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0	1	2	3	4
15. 나는 명랑하고 쾌활한 사람이다.	0	1	2	3	4
16. 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	0	1	2	3	4
17. 나는 우리집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0	1	2	3	4
18. 나는 집안식구들과 잘 지내고 있다.	0	1	2	3	4
19. 나는 지금껏 가족들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지 못하고 불신 속에 살고 있다.	0	1	2	3	4
20. 우리 식구들은 나를 별로 신동치 않게 여기고 있다.	0	1	2	3	4
21.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0	1	2	3	4
22. 나는 누구하고든 쉽게 친해질 수 있다.	0	1	2	3	4
23. 사교적인 면에서 볼 때 나에게는 좋은 점이라고는 없다.	0	1	2	3	4
24. 이만하면 나도 비사교적인 편은 아니다.	0	1	2	3	4
25.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친근한 느낌을 준다.	0	1	2	3	4
26. 나는 어떤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다.	0	1	2	3	4
27.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있는 사람이다.	0	1	2	3	4
28. 나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0	1	2	3	4
29. 나는 다방면에 능력이 있다.	0	1	2	3	4
30. 때로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0	1	2	3	4